



서부사료(주)

명문 장수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고객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는 '2016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시상식과 선진사례 발표는 지난 10월 19일 중소기업청과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주관하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올해 9회를 맞는 아름다운 바통터치상은 존경받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오랜기간 경영이념과 기술의 계승·발전을 통해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과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 업력 30년 이상의 가업승계를 완료했거나 준비 또는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서부사료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오랜 기간 기업을 지속성장·발전시켜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수상했다. 올해 47주년을 맞이한 서부사료는 1969년 서울 마포에서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출발했다. 1985년 입사한 2세 경영인 정세진 대표이사는 '기술혁신'에 힘을 쏟았다.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사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으며 축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02년 실험실을 증축하고 국제표준품질경영

시스템(ISO9001:2000) 인증 등을 받았다. 또한 이듬해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계분야 농장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단순히 가축용 사료를 판매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농장경영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일편단심, 고객을 향합니다." 캐치프레이즈로 대대적인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 도심에 현 인천 사업장에 위치한 서부사료는 친환경 공장운영 및 나눔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HACCP System 8회 연속 무결함 인증 및 지역주민과의 연계 강화, 나눔 경영을 통해 깨끗한 기업환경 유지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2016년 인천시 표창장 수상,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을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구성원들의 전문기적 실력을 쌓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혁신스쿨, 독서 경영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서울사료 양계사업부 월간 5만톤 판매 달성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대표 배수한, 이하 서울사료) 양계사업부는 지난 10월, '153 캠페인 - 양계사업부 월간 5만톤 판매'를 달성하였다. 서울사료 강완병 양계 PM은 '153 캠페인' 명칭은 '독보적

인 업계 1위', '사업부 월 5만톤 판매 달성', '양계 시장 점유율 30% 비전'의 의미라고 밝혔다. 또, 캠페인 성공의 원인으로는 "서울사료 영업, 생산, 지원 부서 등 구성원 모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최재정 양계사업부장은 "5만톤 달성은 고객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정과 믿음의 결과이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객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배수한 대표는 양계사업부가 '산란계사료 1위 굳히기, 양계사료 1위,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사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더욱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컨설팅 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격려했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서 서울사료 거래 농장 가농바이오, 금강LF 계란부문 우수상 수상



지난 1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시 본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가농바이오(대표 유재홍, 사진)와 금강LF(대표 이양의, 사진)가 각각 계란부문 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우수상(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에 선정됐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한우·한돈·육우·계란 등 4개 부문에서 최고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행사이며, 축종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선정기준에 따라 농가 현지실사 및 1년간 출하된 가축 전체에 대한 등급판정결과 분석 등을 통해 최종 선

정된다. 2016년 평가에서 계란 부문 선정농가 3곳 중 2곳이 서울사료와 거래하고 있어 서울사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가농바이오는 한국 산란업계의 현대화에 기여한 선도 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산란계 농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금강LF는 1990년 국내 최초 무창계사 도입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산란업계 선두 기업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추천 받아



지난 1~15일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이보균, 이하 카길 문화재단)이 올해로 19년째로 진행하는 카길 문화재단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추천을 받았다. 카길 문화재단은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은 축산 및 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축산 및 사료 분야의 기술 및 연구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카길 문화재단은 1997년 설립된 농업분야 최초의 공익재단으로 축산 및 사료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 및 사료분야의 학술적 연구활동과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12월 중 진행 될 예정이다.